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7)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불어나게 하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군중들은 신이 나서 그분께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수군거리며 믿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용서하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세요.



브라질에 사는 벤타의 이야기예요.

내 친구가 다른 한 친구에 관해 좋지 않게 말했어요. 내가 교실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즉시로 나는 그 친구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어요. 그 친구는 몹시 속상해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나는 우리들이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돌이 화해하라고 부탁했어요. 두 친구는 서로 사과했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